

연예

12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2002년작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비뚤어진 세상에 맞선 '포라이' 강철중의 주먹

사이코 연쇄살인 '물신주의' 은유 그를 심판한 역대급 형사 캐릭터 최소한의 정의를 통쾌하게 연출

"강동경찰서 강력반 강철중!" 형사 강철중의 사전에 경찰관의 사망감이란 단어 따위는 없다. 수사지침이나 수사기법은 먼 나라 형사들에게 해당할 뿐이다. 오히려 압수한 마약을 되팔려는 비리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진급 따위에도 관심이 없다. 동료들이 "두 계급 진급 할 동안 두 계급 강등"된 그는 그래도 "강동경찰서 강력반 강철중"을 외치며 다닌다.

그래서 그를 세상 사람들은 "포라이"로 여겼다.

그런 그가 우선적으로 믿는 것은 주먹뿐이다. "컨닝 해서 풀등에서 두 번째 했던" 기계공고를 나온 그는 아시안게임 복싱 은메달리스트로서 경찰에 특채됐다.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했던 그는 그렇게 맞은 이들이 "4열 중대 앞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라고 허언할 만큼 무지막직한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또 하나, 직감이다. 잔혹하게 살해된 부모의 죽음 앞에서 다리를 뿔뿔히 흔들며 울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아들이 바로 범인임을 의심하는 순간 직감은 현실이 된다.



공공의 적

1990년대 말 참담했던 IMF 위기를 벗어났지만 수많은 이들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거리로 밀려났던 때, 신자유주의가 또 다른 삶의 고달픈 현실로 사람들을 몰고가던 때였다. 물신주의가 횡행하던 바로 그때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이코패스 범주

는 물신주의로 가득해 황폐해진 현실을 은유했다.

강우석 감독은 "포라이" 강철중의 직감과 주먹이야말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응징의 과정을 통쾌한 코미디로 풀어냈다. 적당히 타락한 비리 경찰관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최소한의 정의로움을 웃음으로 빚어냈다.

강철중은 그렇게 한국영화 사상 독보적인 형사 캐릭터로 남았다. 이를 연기한 설경구의 대표적인 극중 캐릭터 역시 강철중이 단연 첫 손에 꼽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4

'슈주' 김희철-트와이스 모모 열애 부인



그들 슈퍼주니어의 김희철(36)과 걸그룹 트와이스 모모(하이라이 모모·23)가 6일 제기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친한 선 후배 사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속사인 레이블SJ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부인했다. 평소 김희철은 각종 방송을 통해 "내 마음 속의 소속사는 JYP엔터테인먼트"라며 트와이스 멤버들을 유난히 아끼고 챙겼다. 모모 역시 김희철과 민경훈이 함께 부른 '나비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다.

사생활 논란 강타, 뮤지컬 헤드릭 하차



과거 연애사로 논란에 휩싸인 가수 강타가 뮤지컬 '헤드릭'에서 하차한다. 뮤지컬 제작사 쇼노트는 6일 "소속사와 협의를 통해 강타의 하차를 최종 결정했다"면서 "뮤지컬에 기대해준 많은 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타는 16일 개막하는 뮤지컬에 17일부터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하라"는 팬들의 거센 요구를 받았다. 제작사 측은 "강타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공연 회차는 취소하며 티켓 금액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엑소 디오, 조리병으로 군 복무



그들 엑소의 멤버 겸 연기자 디오(도경수·26)가 조리병으로 군 복무할 예정이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7월1일 입대하던 디오의 군 복무 주 특기는 조리병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디오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퇴소 후 자대배치를 받아 조리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디오는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엑소 멤버들로부터 요리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디오는 5월 입대하던 시우민에 이어 엑소 멤버로는 두 번째로 군 복무 중이다.

만취 재물손괴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술에 취해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연기자 이재룡(55)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6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형사 7부(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불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다. 6일 소속사는 "피해 금액을 당시 전액 보상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상태"라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연예현장.jpg 걸그룹 파나티스 두근두근 데뷔무대



"무지개 같은 그룹이 되고 싶어요" 6인조 신인 걸그룹 파나티스(왼쪽부터 채린, 지아미, 도아, 도이, 시카, 윤희)가 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멤버 가운데 도이는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48'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민성 기자 marinboy@donga.com

"팬들은 돈벌이 수단이나" vs "네 사랑까지도 응원해"

양분된 팬심...강다니엘 '열애 후폭풍'

솔로 데뷔 묵묵히 기다려준 팬들 45만장 앨범 판매 가능케 했지만 지효와 열애에 실망감 팬심 분열



강다니엘

열성적이고 충성도 높은 팬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일까. 가수 강다니엘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와 1년 가까이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받은 팬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신의 연애를 바라보는 팬들이 지지와 비난의 시선으로 맞서며 대립의 양상까지 드러내는 상황이라서 더욱 그렇다.

강다니엘의 팬들은 2017년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한 그를 뜨겁게 지지하며 1위에 올려 놓았다. 강다니엘 역시 솔로 데뷔를 앞두고 불거진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 속에서 "오래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서둘

러 솔로로 나섰다"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부터 지효와 교제해왔고, 특히 소속사 분쟁 상황에 지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이 5일 알려진 뒤 팬들은 크게 동요했다. 더욱이 솔로 데뷔 쇼케이스를 펼친 7월25일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지효를 만났다는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팬들은 격앙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신인가수로는 이례적으로 앨범 판매량 45만 장을 돌파하며 남다른 스타파워를 자랑했던 날이기도 해서 이를 가능케 해준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이들은 강다니엘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또 다른 팬들과 대립하며 "그가 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는 비난가

지 내놓고 있다. 심지어 강다니엘과 지효를 연결해준 선배 아이돌 가수가 그룹 2A M 출신 입술옹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졌다.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강다니엘은 5일 밤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많이 놀랐을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찾아온 건 아닌가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가끔씩은 정말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저를 붙잡아 주셨던 건 다른 무엇보다도 팬 여러분이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6일 "강다니엘이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성 루머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악성 게시물을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거미와 조정석

'부창부수'

거미,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 1위 조정석의 '엑시트' 300만 관객 돌파

'부창부수(夫婦囃子)'

가수 거미와 배우 조정석이 연예계 '홍행 부부'로 새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남다른 흥행 파워를 앞세워 각종 음원차트와 스크린을 점령하고 있다. 특히 각자 영역에서 활약해온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나란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흥미를 자극한다.

거미는 안방극장에서 오랜만에 'OST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흥행 바통을 이어받았다. 드라마는 최근 태연의 시작으로 헤이즈 등 여성 보컬리스트를 내세워 음원차트를 점령한 뒤 일곱 번째 주자로 5일 오후 거미를 내세워 또 한번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거미는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들'이라는 곡을 통해 'OST 퀸'의 귀환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감성적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어울려 팬들의 귀를 사로잡은 덕분이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삽입곡 '유아마이 에브리싱'으로 1위를 차지한 그는 2년 반 만에 또 다시 드라마 몰입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남편 조정석은 스크린에서 흥행 기록을 써가고 있다. 윤아와 함께 주연한 영화 '엑시트'(제작 외유내강)가 6일 오후 기준 누적관객 330만 명을 돌파했다. 도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테러에 맞서는 극중 조정석은 특유의 코믹 연기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생명을 위협하는 극적이고 긴박한 순간에도 그의 최대 무기인 코믹함을 한껏 드러내며 관객이 스크린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는 평가다. 덕분에 이전 출연 영화의 저조한 성적을 한번에 뛰어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정연 기자

안방 달구는 2인자들

손석구 '60일...'서 킹메이커 전략가 이지훈 '신입사관...' 신세계 도우미



손석구



이지훈

안방극장에 '2인자'들이 떴다. 현재 방송 중인 tvN '60일, 지정생존자'의 손석구와 MBC '신입사관 구해령' 이지훈이다. 극중 주인공을 돕고 성장시키는 역할로 시청자에게 각기 깊은 인상을 남겨 눈길을 모은다.

손석구는 '60일, 지정생존자'에서 '킹 메이커'로 통한다. 극중 국회의사당 테러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진희를 보좌하면서다. 이지훈은 '신입사관 구해령'에서 왕의 명령 등을 기록

하는 관청인 예문관의 한림(관원)이자 신참사관인 신세계의 선배로 등장한다.

이들은 주인공과 함께 각종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극의 재미를 높인다. 손석구는 정치 감각이 부족한 지진희를 위해 각종 전략을 세운다. 동시에 지진희와 '브로맨스'도 형성한다. 이지훈은 첫 여자사관으로 공평에 입성한 신세계를 공정하게 대하며 일을 가르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내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두 사람은 길지 않은 연기 경력 속에서도 탄탄한 실력을 과시해 호평을 이끌어냈다. 손석구는 2016년 미국드라마 '센스8' 시즌2로, 이지훈은 2013년 KBS 2TV '학교2013'으로 데뷔했다. 손석구의 소속사 셋별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대중에게는 아직 다소 낯선다는 점이 오히려 시청자에게 신선함을 안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훈의 소속사 지크리에이티브 관계자는 "SBS '육룡이 나르샤' 등으로 쌓은 사극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각 드라마는 안방극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지정생존자'는 시청률 4.5%(5일·이하 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신입사관 구해령'은 1일 6.9%로 수목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